

# 나의 삼

박소영 글 이혜승 그림





## [교실 속 그림책220] 나의 삶

2019년 2월 1일 초판발행 2019-00220

| 지은이 | 박소영

| 지 도 | 최혜선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http://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9671-63-1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머 리 말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으로 교육미술관 통로가 펼쳐내는 220번째 이야기이다. 교육미술관 통로의 창작 그림책은 공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현직교사와 어린이작가가 함께 만들어 낸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경이로운 감동을 준다.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했던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가 2018년에는 학교 전체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글 없는 그림책의 글 작가가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다. 졸업한 선배 어린이작가의 그림책에서 그림만 남기고 글은 모조리 제거했다. 그림만 남은 그림책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전교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부탁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써주세요."

아이들은 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저마다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원작인 교실 속 그림책 『영킨 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다. 선배의 그림과 후배 어린이작가의 글이 만나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2차 창작물이 탄생했다.

수업을 진행하시던 6학년 1반 최혜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써 내려간 흔적을 사려 깊은 눈으로 살펴보셨다. 아이가 슬그머니 그림책 속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주셨다. 선생님께서 그림책 뭉치를 품에 안고 교실 문을 두드려주신 덕분에 이 작품들과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작품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펼쳐놓은 창작의 세계에 감격했다.

중학생이 된 어린이작가 이해승에게도 후배 작가들이 쓴 그림책을 전해주었다. 후배들의 작품을 살펴보던 혜승이가 이렇게 말했다. “와 선생님, 동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게 혜승이의 그림과 소영이의 글이 만나서 교실 속 그림책 『나의 삶』이 탄생했다. 소영이는 남들과 똑같은 뜨개질로 짜여진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 틀에 맞추는 대신 엉킨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인정한다. 억지로 풀거나 자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소영이는 분명 자기만의 멋진 목도리를 짜낼 것이다. 연하지만 단단한 손끝으로 자기 삶을 마음껏 묶고 풀고 엮어나갈 어린이작가 박소영을 뜨겁게 응원하며.

## 작가의 말

글 없는 그림책에 이야기를 담아 첫 그림책을 쓰게 됐습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학원에 갑니다. 잘 모르는 장소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도 숙제를 합니다. 인생의 실을 스스로 엮어 가야 하는데, 남의 손으로 맞추어 짜여집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이를 실에, 그리고 부모님은 뜨개질하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실 뭉치처럼 남의 손에 맞추어 짜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짜도록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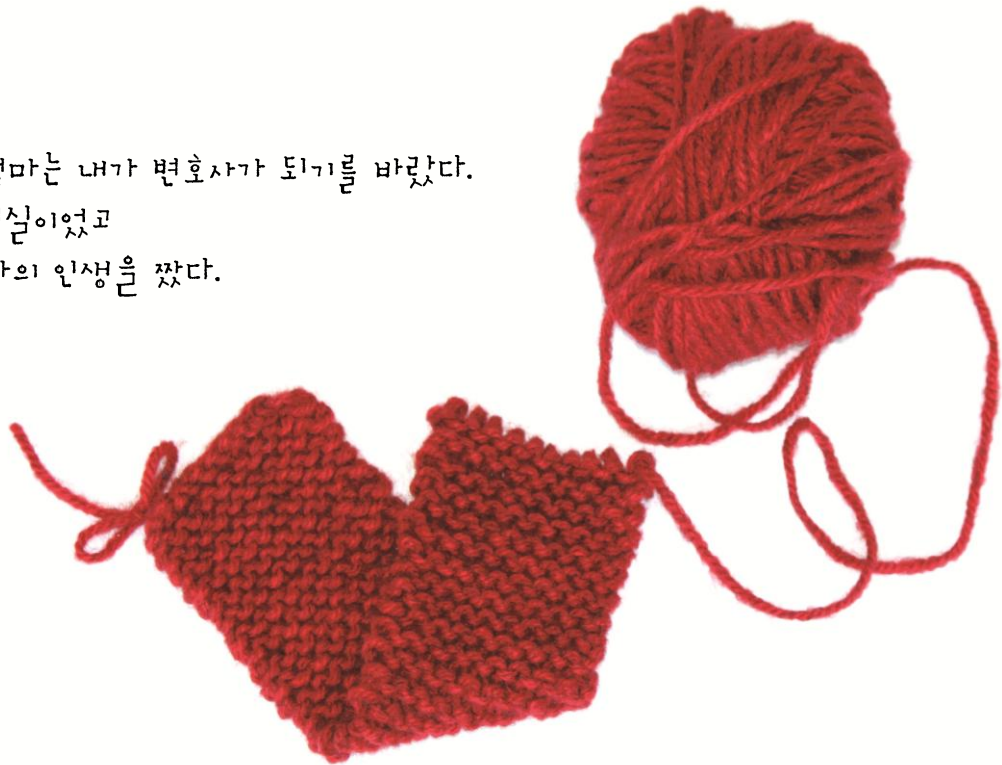



저희 어머니는 저를 신타래 취급 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제 책을 읽은 한 친구가 오해한 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학교 선배 이혜승 언니의 <영킨 실>의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대로 저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이 특별한 독서감상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다양한 책을 보면서 얻은 표현들과 나의 생각을 합쳐서 이 그림책이 나왔으니까요.


제 그림책을 보고 또 다른 후배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독서감상문을 써간다고 생각하니 기대됩니다. 독자들이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이 주먹을 낸다고 나도 똑같이 주먹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내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털실이었고  
엄마만 나의 인생을 짰다.





내가 열 살 때 친구들과 놀고 싶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엉켜 즐겁게 놀았다.



하지만 엄마는 우린 풀어놓고서  
다시 내 인생을 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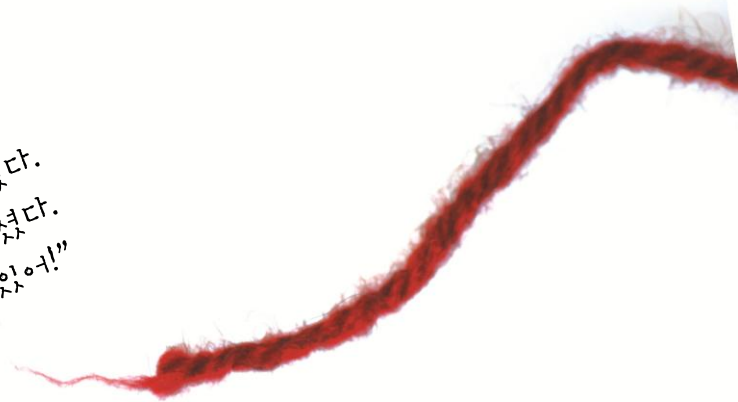
“넌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겐 의지가 없다. 난 힘없는 털실이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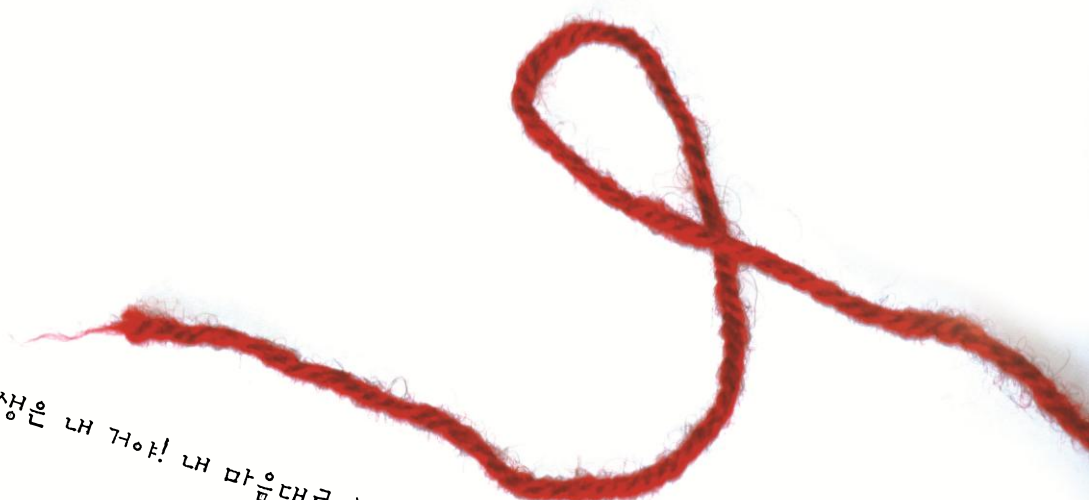
엄마는 책을 보고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화려한 기술로 내 인생을 짰다.

어느 날, 나는 결국 실은 끈고 도망쳤다.  
뒤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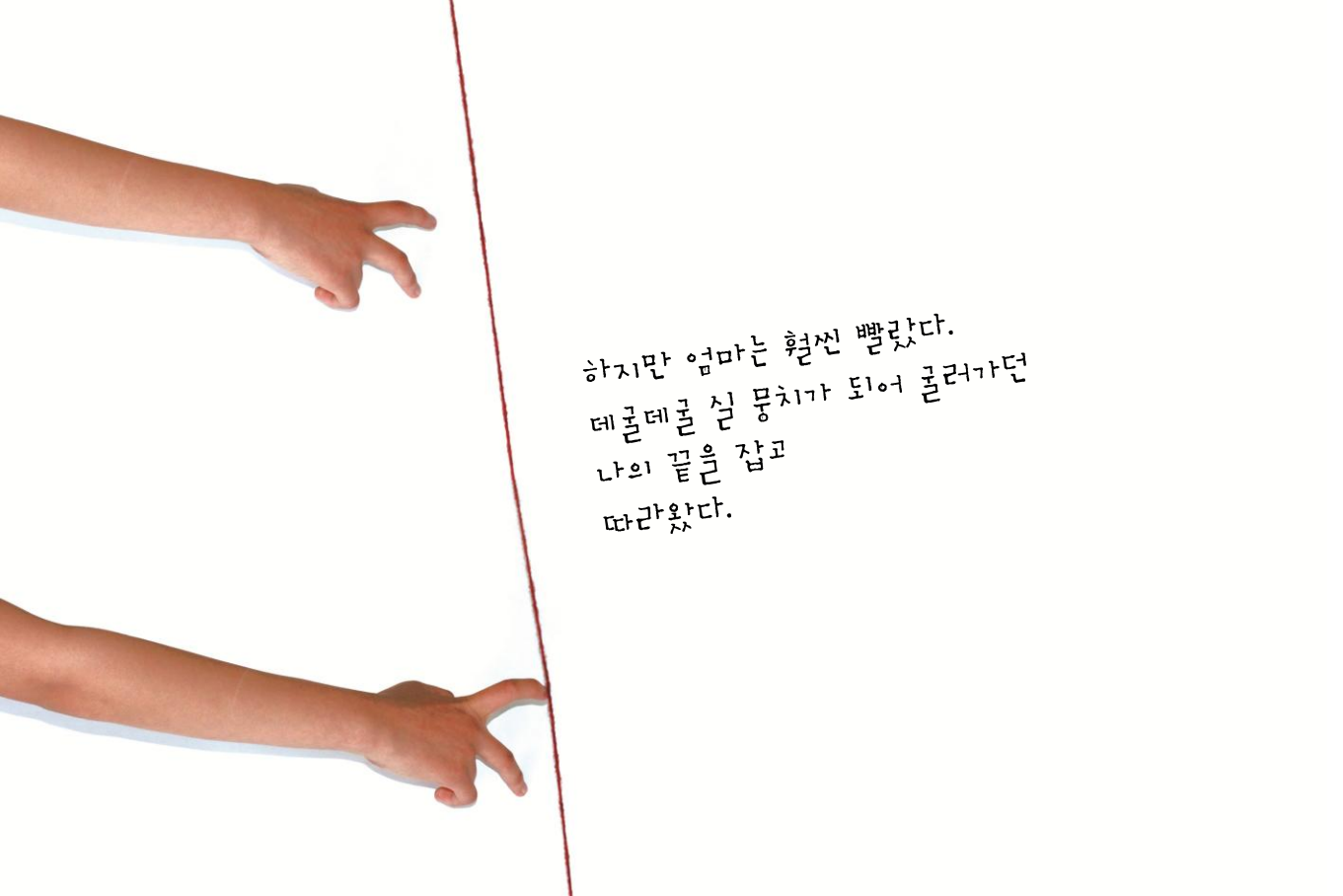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싫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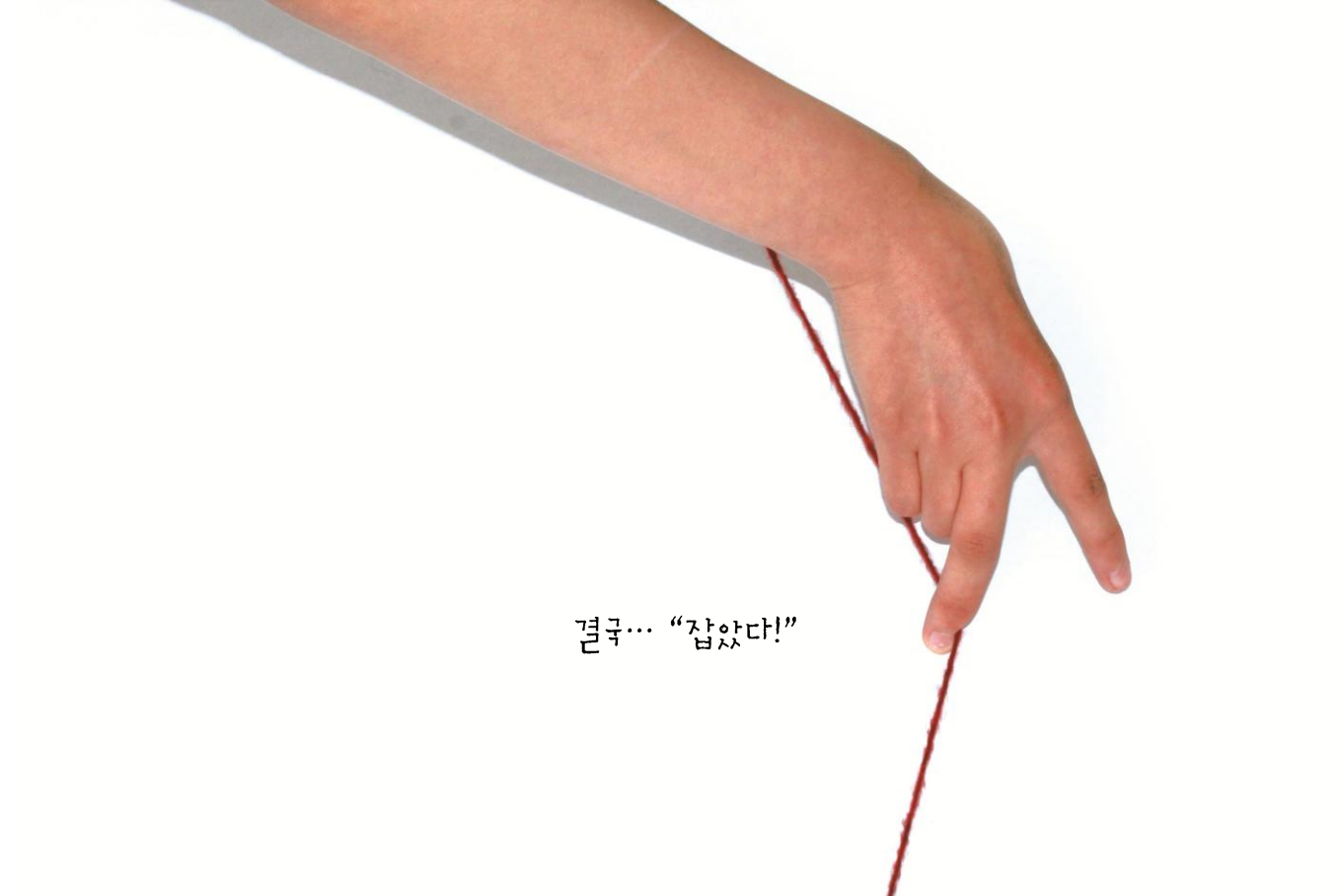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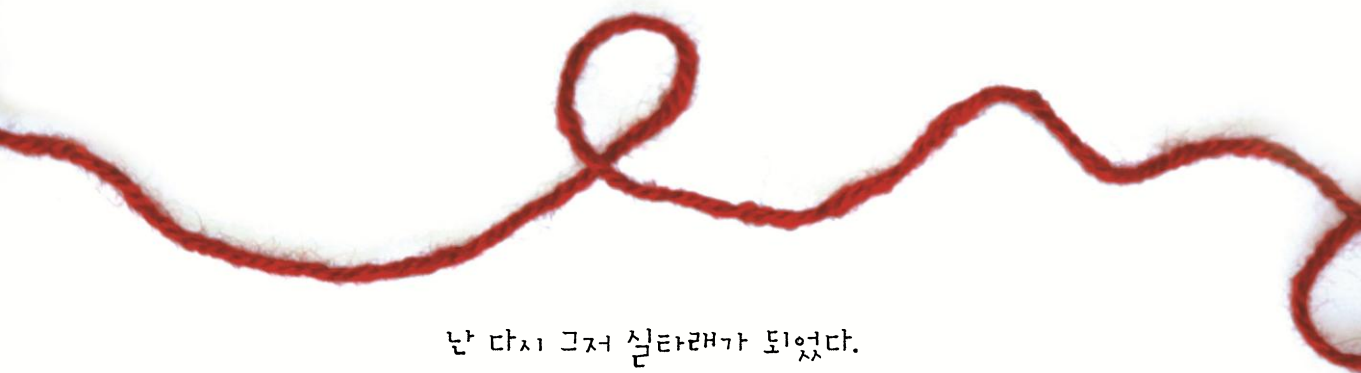
하지만 엄마는 훨씬 빨랐다.  
데굴데굴 실 뭉치가 되어 굴러가던  
나의 끝을 잡고  
따라왔다.

A close-up photograph of a person's right hand holding a thin, red, textured string. The hand is positioned in the upper right quadrant of the frame, with the index and middle fingers gripping the string. The string extends downwards from the hand.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surface. The lighting is soft, casting a subtle shadow of the hand onto the background.

결국... “잡았다!”




엄마는 다시 끊어진 곳과 나뉘어 붙였다.



난 다시 그저 실라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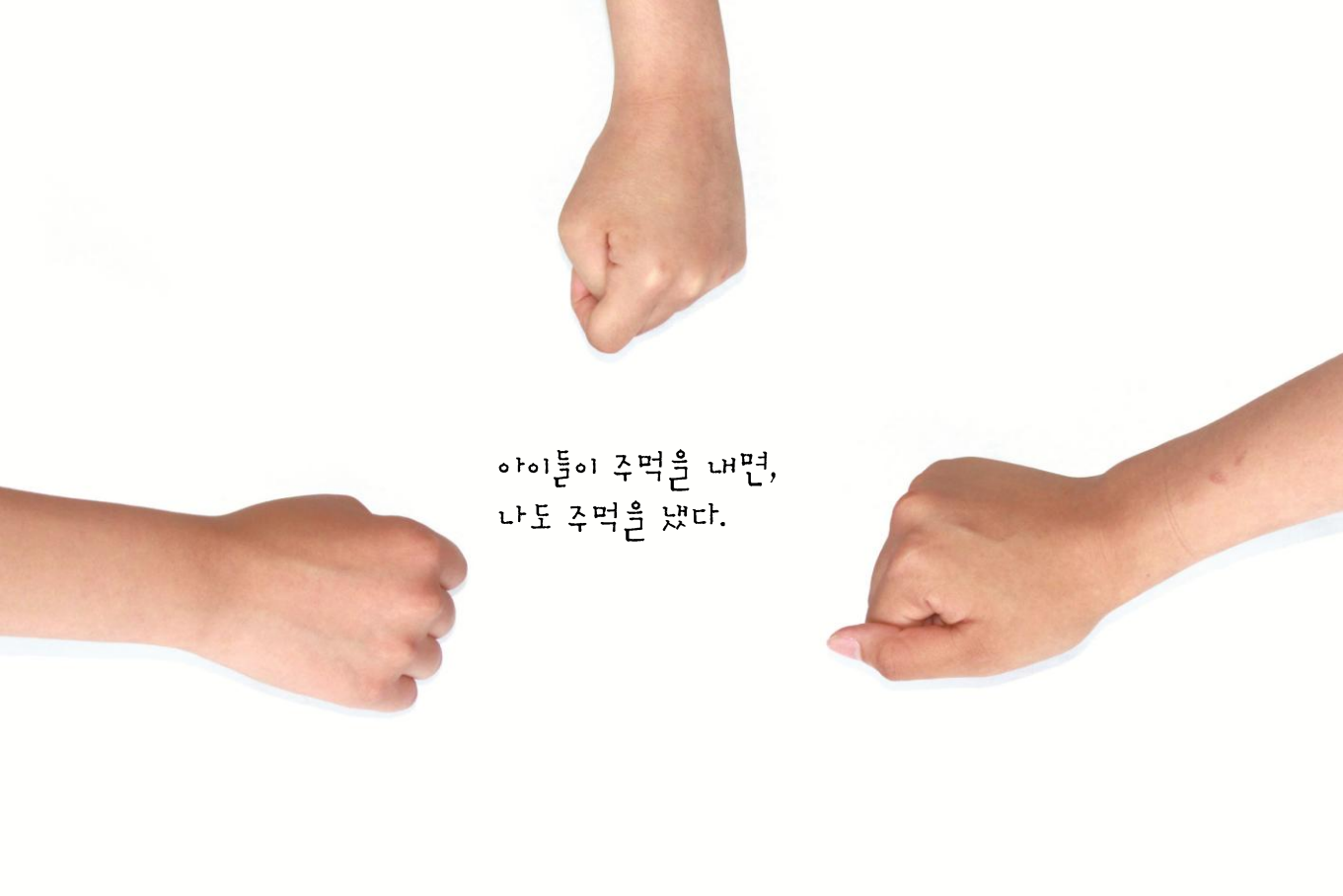
일주일간 엄마는 내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Three hands are shown pointing towards the center text. One hand is at the top, one at the bottom left, and one at the bottom right.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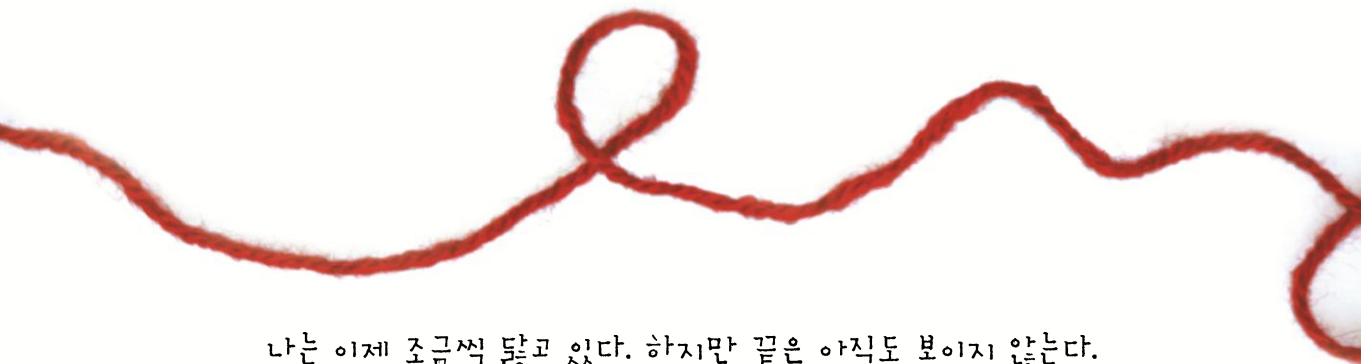
“넌 그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엄마는 내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길 바랐다.



Three clenched fists are arranged around the central text. One fist is at the top, one is on the left, and one is on the right. Each fist is pointing towards the center.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아이들이 주먹을 내면,  
나도 주먹을 썼다.



나는 이제 조금씩 닳고 있다. 하지만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내 속은 엉켜가고 있었다.



결국 난 엄마의 뜰에서 살기를 포기했다.






엄마가 손을 댈 수도 없게 영킨 것이다.

나는 말했다.

“완벽할 필요 없어. 짜여질 필요 없어.”



“영키면 어때?  
조금 안 맞으면 어때?  
내 삶은 내 거야.”





엄마가 영킨 그대로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네 삶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틈에 맞게  
나뉜 자를 필요는 없다.



엉킨 것을 꼭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나의 삶[전자자료] / 지은이: 박소영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9

전자책 책

ISBN 979-11-89671-63-1 -6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비매품

75810



9 791195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